

한국 거주 이주배경 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정승희* · 홍진이** · 신지원*** · 정민예****

요약 본 연구는 이주배경인의 문제행동과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성인기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보호 요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건강한 역할 수행을 지원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PRISMA 지침을 따라 KCI, RISS,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문헌을 수집하고, JBI의 횡단적 조사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연구자 3인이 질적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종 13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 외재화 문제행동은 공격성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행동의 영향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 경험, 경제적 어려움(Δ) 등이 주요 예측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사회적 지지, 긍정적인 또래 관계,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제행동 유형과 영향 요인을 바탕으로 중재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주배경인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문제행동, 영향요인, 이주배경, 중재, 체계적 고찰

* 제1저자, 연세대, 작업치료학, 석·박사통합과정, wjdtmdgml98@yonsei.ac.kr

** 공동저자, 연세대, 작업치료학, 석사과정, hongj6932@gmail.com

*** 공동저자, 연세대, 작업치료학, 석사과정, sjw1151@yonsei.ac.kr

**** 교신저자, 연세대, 작업치료학, 교수, minye@yonsei.ac.kr

1. 서론

다문화 사회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주 지역사회 문화에 적응 하면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김순양 2013). 한국 사회는 국내 경제발전에 따라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였고(김은혜·최려나 2024), 한류의 높아진 위상으로 경제적 부와 기회를 찾는 이주민 또한 늘고 있다(허준 2020).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다문화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채명옥 외 2018),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유입은 민족 간 갈등(김유경 외 2012)과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및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신동준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주배경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정은 2020; 여성가족부 2011). 이주배경인은 주로 가족 또는 출신국 모임에 의존하며,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적이고 그 참여도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배경희 2013; Kim 2018). 이로 인해 정보 수집의 어려움과 상호작용의 부족이 발생하여, 일자리 및 모임 활동과 같은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이다(Cho 2010: 183; Kim 2012).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 다문화실태조사’에서는 이주민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별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고하였다.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은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기대되는 행동과 다르게 나타나는 부적응적 행동을 의미하며(최진희 2018),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원경 외 2011). 이러한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재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되기도 한다(Achenbach and Rescorla 2001). 내재화 문제행동은 심리적 고립,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내면으로 표출되는 정서적 어려움을 포함하고 주로 자아존중감 저하, 사회적 위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서봉언 2019; 정기선·한지은 2009). 반면, 외재화 문제행동은 충동성, 공격성 등으로 외부에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폭력, 비행 등이 포함

된다(서봉언 201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문제행동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 악화, 자아존중감 저하 등을 지적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 단절을 초래하고 외재화 문제행동은 공동체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김원경 외 2011; 윤인진 2008). 이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어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 웰빙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정미경·김영희 2003; Waters and Higgins 2022). 이러한 문제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넘어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사회적 배제 등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강화·배은경 2018; 오옥선 2014). 즉,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주배경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김청송 외 2017). 이주배경인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은 그들이 평등한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실에서는 문화적·경제적 적응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다(이수자 2023).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보건복지부) 및 Wee센터(교육청) 등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교육부 2020).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아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심리·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주배경 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본 연구는 이들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연령대(학령기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거나 비행, 음주 등의 행동에 국한된 문제행동 요인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이윤미·최희승 2018). 이로 인해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연구가 부족하며, 문제행동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서봉언 2019).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주배경인의 문제행동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다문화인의 문제행동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통합과 성인기 사회참여

를 돕기 위한 보호요인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인의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거주 이주배경인의 문제행동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다. 본 체계적 문헌고찰은 Moher, Liberati, Tetzlaff와 Altman(2009)이 제시한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연구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2024년 3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문헌 검색 전략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의 문제행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한국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국회전자도서관을 활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문헌 검색을 위해 사용한 용어는 (“다문화” OR “이주민”) AND (“문제행동” OR “행동문제”)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내 거주 이주배경인의 문제행동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선정기준

- (1)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 (2) 문제행동 혹은 행동문제를 기술한 연구

- (3)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한 연구
- (4)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
- (5) 한국어 혹은 영어로 출판된 문헌

나) 배제기준

- (1)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
- (2) 개발연구
- (3) 질적연구
- (4)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
- (5) 이주배경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 (6) 전문이 없는 연구

3) 문헌 선택 과정

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문헌을 검색한 후, 연구자 3인이 함께 문헌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헌 선택 과정은 PRISMA 흐름도에 따라 진행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검색한 3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2,125편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중복된 문헌은 167편이었다.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1,585편을 제외하였다. 배제기준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 49편, 사례 및 개발 연구 23편, 효과검증 66편, 국문 혹은 영문으로 저술되지 않은 연구 55편,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위험요인이 아닌 보호요인을 기술한 연구, 다문화 교육을 기술한 연구, 사회적인 문제 및 정책들에 관한 연구) 167편을 제외하여 총 13편의 문헌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4) 분석대상 문헌의 질적수준 분석 방법

선택된 문헌들에 대하여 Joanna Briggs Institute(JBI)에서 개발한 횡단적 조사 평가항목(Checklist for Analytical Cross Sectional Studies)을 적용하여 문

현의 질적수준을 평가하였다(Joanna 2017). JBI 평가도구는 평가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되 양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본 도구의 평가 항목은 연구 대상자 선정 및 배제기준의 명확성, 자료수집 장소, 시간, 대상자의 내용, 독립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적절성,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 질환의 위험요인 노출과 관련한 내용, 질환의 진단에 대한 내용, 혼돈변수 정의 및 통제, 통계 분석방법의 적절성과 결과변수 측정의 8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예(Yes), 아니오(No), 불명확(Unclear), 해당 없음(Not applicable)으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8개의 항목을 모두 적용하여 평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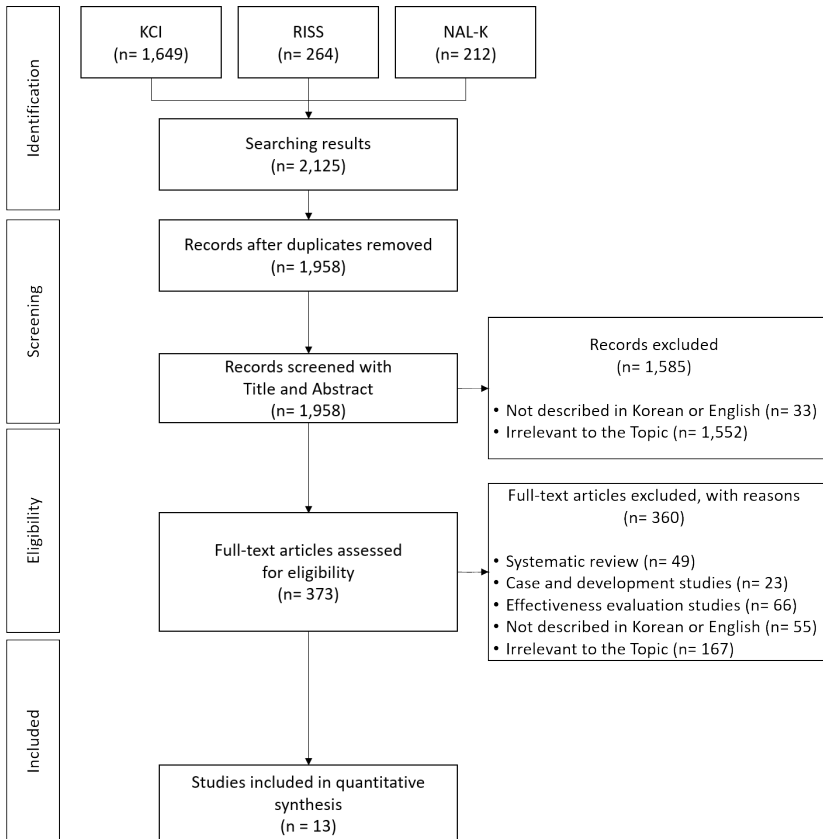


그림 1. Literature selection flow chart

였다. 질적수준 평가는 최종 선정된 13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3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견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최종 평가를 확정하였다.

5) 선정된 문헌의 분석 및 제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문헌들을 연구의 질적수준, 이주배경인의 특성(국가 및 연령), 문제행동 요인, 문제행동 영향요인에 따라 빈도를 분석하고 표로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1) 분석대상 문헌의 질적수준

JBIChecklist를 활용하여 대상 문헌의 방법론적 질적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13편의 문헌 중 4편은 8개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4편은 7개의 기준, 3편은 6개의 기준, 2편은 5개의 기준에서 ‘예’로 평가되어 최종 13편의 연구가 모두 선정되었다. 또한, 선정된 최종 문헌들은 1번 항목(표본에 대한 포함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었는가), 2번 항목(연구 대상과 설정이 자세히 기술되었는가), 그리고 8번 항목(적절한 통계 분석이 사용되었는가)은 최종 12편의 문헌에서 모두 ‘예’로 평가되었다(<표 1>).

표 1. JBIChecklist for Literature Quality

| No. | Study | | JBIChecklist Item-by-Item Evaluation Scores | | | | | | | |
|-----|--------|------|---|---|---|---|---|---|---|---|
| | Author | year | 1 | 2 | 3 | 4 | 5 | 6 | 7 | 8 |
| 1 | Kim | 2010 | Y | Y | Y | Y | Y | U | Y | Y |
| 2 | Lee | 2010 | Y | Y | U | U | Y | Y | U | Y |

| | | | | | | | | | | |
|----|-------------|------|---|---|---|---|---|---|---|---|
| 3 | Cho et al. | 2011 | Y | Y | Y | Y | U | U | Y | Y |
| 4 | Choi | 2012 | Y | Y | Y | Y | U | U | Y | Y |
| 5 | Yin & Jang | 2012 | Y | Y | U | Y | U | N | Y | Y |
| 6 | Kang et al. | 2013 | Y | Y | Y | Y | Y | Y | Y | Y |
| 7 | Kwon et al. | 2013 | Y | Y | Y | Y | Y | U | Y | Y |
| 8 | Baek | 2015 | Y | Y | Y | Y | U | U | Y | Y |
| 9 | Kim et al. | 2016 | Y | Y | Y | Y | U | Y | Y | Y |
| 10 | Rhee & Lee | 2016 | Y | Y | Y | Y | Y | N | Y | Y |
| 11 | Choi | 2018 | Y | Y | Y | Y | Y | Y | Y | Y |
| 12 | Lee | 2019 | Y | Y | Y | Y | Y | Y | Y | Y |
| 13 | Kim | 2021 | Y | Y | Y | Y | Y | Y | Y | Y |

* Y: yes, N: no, U: unclear, N/A: not applicable

2) 분석대상 문헌의 이주배경인 특성

분석대상 문헌 13편에 대하여 이주배경인의 국가를 조사하였다. 중국이 9편으로 가장 많은 문헌 수를 나타냈다. 그 외의 국적을 ‘기타’로 표기한 문헌이 5편으로 뒤를 이어 나타났다(〈표 2〉). 또한, 최종 선정된 문헌 중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헌은 5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헌은 8편으로 나타났다. 문헌 간 통일을 위해 연령으로 기술된 경우에는 한 살을 추가하였다(〈표 5〉).

표 2. Multicultural countries in the literature analyzed

| No. | Country | N |
|-----|----------------|---|
| 1 | China | 9 |
| 2 | Japan | 8 |
| 3 | Philippines | 7 |
| 4 | Vietnam | 6 |
| 5 | etc | 5 |
| 6 | North Korea | 3 |
| 7 | Thailand | 3 |
| 8 | Cambodia | 2 |
| 9 | Korean-Chinese | 2 |

| | | |
|----|----------------|---|
| 10 | Mongolia | 2 |
| 11 | Russia | 2 |
| 12 | Indonesia | 1 |
| 13 | Southeast Asia | 1 |
| 14 | Sri Lanka | 1 |

3) 분석대상 문헌의 문제행동 요인

분석대상 문헌의 문제행동은 내재화 행동과 외재화 행동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내재화 행동이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 및 행동장애로 우울, 불안 등과 같은 행동이 포함되었으며, 외재화 행동이란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정서 및 행동장애로 공격성, 폭발적 행동 등과 같은 행동이 포함되었다(Achenbach and Rescorla 2001). 내재화 행동에서는 불안이 13편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외재화 행동에서는 공격성이 11편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표 3〉).

표 3. Problem Behaviors Occurrence Counts

| Problem Behavior | | |
|------------------|--------------------------|----------|
| Internalization | <i>Factors</i> | <i>N</i> |
| | Anxiety | 13 |
| | Depression | 9 |
| | Withdrawal | 8 |
| | Somatization | 5 |
| | Cognitive impairment | 1 |
| | Emotional response | 1 |
| | Hopelessness | 1 |
| | Social withdrawal | 1 |
| Externalization | <i>Factors</i> | <i>N</i> |
| | Aggression | 10 |
| | Wrongdoing | 4 |
| | Violation of regulations | 3 |
| | Alcohol | 2 |

| | |
|----------------------|---|
| Hyperactive behavior | 2 |
| Aggressive Behavior | 1 |
| Assault | 1 |
| Attention | 1 |
| Distraction | 1 |
| Egocentrism | 1 |
| Expression of Anger | 1 |
| Impulse | 1 |
| Smoking | 1 |
| Suicidal behavior | 1 |
| Truancy | 1 |

4) 분석대상 문헌의 문제행동 영향요인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가정적, 또래 및 학교,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79).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문화 이질성, 문화충격, 차별경험 등)와 정서적 반응(우울, 불안)으로, 가정적 특성은 부모의 양육방식, 문화적응, 경제적 상황 등으로 정의하였다. 또래 및 학교 특성은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또래관계, 학교 환경의 지원 수준으로, 사회환경적 특성은 사회적 자원 및 지원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예측요인(▽)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예측요인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경험, 낮은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이 포함되며, 보호요인에는 자아탄력성, 긍정적인 가정환경, 사회적 지지(△) 등이 해당한다.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이 13개의 영향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정적 특성은 10개, 또래 및 학교 특성과 사회환경적 특성은 각각 5개로 나타났다(〈표 4〉).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우울, 불안, 낮은 자아정체성)는 차별경험, 학교 부적응, 또래관계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가정의 경제적 여건,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

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Influencing Factors Occurrence Counts

| Influencing Behavior | | |
|--|---|---|
| | <i>Factors</i> | <i>N</i> |
| Personal Characteristics | ▼Acculturative Stress – Cultural heterogeneity, Cultural shock, Discrimination experience, Homesickness, Marginalization | 2 |
| | ▼Gender | 2 |
| | ▼Academic achievement | 1 |
| | ▼Alcohol drinking experience | 1 |
| | ▼Depression experience | 1 |
| | ▼Direct effect – Discrimination experience, Self esteem decrease | 1 |
| | ▲Ego Resilience | 1 |
| | ▼Individual Characteristics | 1 |
| | ▼Indirect effect – Difference in appearance, Ethnic identity, Korean language skills | 1 |
| | ▼Smartphone overuse | 1 |
| | ▼Smoking experience | 1 |
| | ▲Subjective health | 1 |
| | ▲Successful Intelligence | 1 |
| | Family Characteristics | ▼Cultural adaptation of mothers – Cultural shock, Fear, Homesickness, Perceived feeling of discrimination, Perceived hostility |
| ▲Efficacy of guiding children problem behavior | | 1 |
| ▼Familial Characteristics | | 1 |
| ▲Family Environment | | 1 |
| ▼Mother acculturation – Assimilation, Integration, Marginalization, Segregation | | 1 |
| ▲Mother parenting – Affection, Consistency, Denial/Control, Independence oriented, Overprotection | | 1 |
| ▼Parenting behavior | | 1 |

| | | |
|--------------------------------------|--|---|
| | ▼Parenting stress – Educational distress, Stress of difficult child,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 1 |
| | ▲Relationship with parents | 1 |
| | ▼Socio-demographic variables – Age of child, Family income, Gender of child, Mother’s education | 1 |
| Peer and School Characteristics | ▲Community Consciousness | 1 |
| | ▼Peer Characteristics | 1 |
| | ▼Schoo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 1 |
| | ▲Social Support – Teacher Support | 1 |
| | ▲Teachers multicultural attitude | 1 |
| Soci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 ▼Economic assistance | 1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1 |
| | ▼Multicultural or not | 1 |
| | ▲Social Resources | 1 |
| | ▲Social Support – Family Support | 1 |

*▼: Predictor & Risk Factor, ▲: Protective Factor

4. 고찰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다문화인의 문제행동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통합과 성인기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보호요인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인의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분석된 연구는 2,125편의 문헌을 탐색하여 최종적으로 13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문헌의 질적수준을 평가한 결과, 총 8개의 문헌 중 ‘예’로 응답한 문헌이 5개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되었다. 분석된 문헌은 2010년 이후 출판되어 매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이주배경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인구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반영한다(국가통계포털 2022).

표 5. Summary

| No. | Author (year) | Number of JBI 'Y | Age | Multicultural country | Problem behavior | | Influencing factors |
|-----|------------------|------------------|-----------------|--|---|---|---|
| | | | | | Internalization | Externalization | |
| 1 | Kim* (2021) | 8 | 14y - 17y | Chin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xiety Depress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icidal behavi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ademic achievement Alcohol drinking experience Economic assistance Family Environment Gender Relationship with parents Smartphone overuse Smoking experience |
| 2 | Choi* (2018) | 8 | 4y - 6y | Cambodia, China, Japan, Korean-Chinese, Philippines, Russia, Sri Lanka, Vietnam, et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xiety Social withdraw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gression Egocentrism Hyperactive behavi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fficacy of guiding children problem behavior Teachers multicultural attitude |
| 3 | Rhee·Lee* (2016) | 7 | 14y - 15y | China, Japan, Mongolia, Philippines, Russia, Thailand, Vietna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xiety Depression Somatization Withdraw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gression Violation of regula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ultural adaptation of mothers – Cultural shock, Fear, Homesickness, Perceived feeling of discrimination, Perceived hostility |
| 4 | Baek* (2015) | 6 | 5y - 7y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xiety withdrawal Emotional response Somatiz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gression Attention decrea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 |
|---|------------------------------|---|------------------------|----------------------------------|--|--|---|
| 5 | Kwon et al.* (2013) | 7 | 4y - 6y | North Kore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xiety • Depression • Somatiz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gression • Hyperactive behavi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ulturative Stress • Depression experience • Parenting behavior • Parenting stress |
| 6 | Lee* (2010) | 5 | 8y - 12y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xiety • Depression • Withdraw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gression • Wrongdo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milial Characteristics • Individual Characteristics • Peer Characteristics • Schoo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
| 7 | Yin· Jang* (2012) | 5 | 4y - 7y | China, Philippines, Vietnam, et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xiety • Depression • Withdrawal • Anxiety • Depression • Withdraw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gression • Wrongdoing • Aggression • Wrongdo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enting stress • Stress of difficult child •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 Educational distress |
| 8 | Choi* (2012) Choi* (2012) | 6 | 13y - 19y 13y | Japan Japa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xiety • Depression • Withdrawal • Anxiety • Depression • Withdraw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gression • Wrongdoing • Aggression • Wrongdo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o-demo-graphic variables • Age of child • Gender of child • Mother's education • Family income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irect effect • Direct effect • Discrimination experience • Self esteem decrease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irect effect • Difference in appearance • Ethnic identity • Korean language skills |

| | | | | | | | |
|----|---------------------|---|----------------|--|---|---|--|
| 9 | Kim* (2010) | 7 | 4y – 6y | China, Japan, Philippines, Vietnam China, Japan, Philippines, Vietna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xiety Withdrawal Anxiety Withdraw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gression Distraction Impulse Aggression Distraction Impul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ther accultu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similation Integration Marginalization Segregation Mother paren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Affection Consistency Denial/Control Independence oriented Overprotection |
| 10 | Kang et al.* (2013) | 8 | 8y – 13y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xiety Withdrawal Somatiz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olation of regulations Aggress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ial Resourc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ty Consciousness Successful Intelligence |
| 11 | Kim et al.* (2016) | 7 | 8y – 13y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xiety Withdrawal Somatiz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olation of regulations Aggress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lticultural or not Gender |
| 12 | Lee* (2019) | 8 | 13.97 | China, Vietnam, Korean-Chinese, Japan, Philippines, Thailand, etc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rongdo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cohol, Assault, Truanc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go Resilience Social Support –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
| 13 | Cho et al.* (2011) | 6 | 18.03 | North Kore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xiety Cognitive impairment Depression Hopelessness Somatiz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gression Alcohol drinking Anger Smoking Wrongdo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culturative St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ultural shock, Cultural heterogene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Homesickness, Marginalization) Subjective health |

*: Final selection for inclusion in the systematic review.

분석된 문헌들의 연구 목적은 주로 이주배경인의 문제행동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문헌을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된 문헌들은 주로 학령전기 아동 5편, 학령기 아동 8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이는 해당 연령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이주배경 인구 중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은 약 15만에서 17만 명으로, 다문화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22). 특히 초등학생이 이 중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2017.08.31). 이러한 분석 문헌의 연령대 분포는 우리나라 이주배경 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30대 이상의 연령대가 이주배경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남에도 불구하고(국가통계포털 2022),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문제행동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주배경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대상 문헌의 문제행동은 내재화 행동과 외재화 행동으로 구분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내재화 행동이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 및 행동장애로 우울, 불안 등과 같은 행동이 포함되었으며, 외재화 행동이란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정서 및 행동장애로 공격성, 폭발적 행동 등과 같은 행동이 포함되었다. 분석대상 문헌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문제행동은 불안과 공격성이다. 이러한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유형별로 차별화된 중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내재화 문제행동(우울, 불안 등)이 높은 아동은 심리상담 및 정서적 중재(인지행동치료, 예술치료 등)프로그램(김현옥 2020; 이아름·송원영 2018), 외재화 문제행동(공격성, 충동성 등)이 높은 아동에게는 행동수정 프로그램 및 자기조절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고려해보아야 한다(성상희 외 2014).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가정적, 또래관계, 학교 및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중 개인적 특성이 13개의 영향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한국어 능력, 학업 성취도 등, 정서적 특성으로는 자존감, 자아탄력성 등이 조사되었다. 이형하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배경 가정 아동들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배경으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도를 저하시켜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혜진·윤혜미 2010; 현정미 외 2014; 홍재양 2020).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며(안선정 외 2013), 이주배경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또래관계 및 학교요인(학업성취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보고하였다(박경희 2008).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이 학교와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또래관계, 심리적 안정감과 같은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교육부의 Wee 프로젝트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재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적 영역은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들인 양육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과 같은 가정환경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미경 외 2007).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지지 부족은 자녀에게도 전달되어 문제행동을 유발하며, 정서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지영 2012; 정옥희 2013). 특히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녀 역시 심리적 불안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한다(박현선 2014; 염희정 2020). 이처럼 가정적 영역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경험은 이주배경 가정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주민여성의 문화적응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관련된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오지훈·김현수 2017; 이제화·이상복 2007).

사회환경적 영역에서는 경제적 지원, 대인관계, 이주배경 여부, 사회적 지원 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주배경인의 차별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부족, 새로운 나라로의 이주 과정에서 민족 소수자로서의 약자 위치와 이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다

(유지희·황숙연 2016). 이주배경임을 밝힌 후 차별을 경험한 아동들이 많았으며, 이러한 차별은 무력감과 수치심을 동반한다고 조사되었다(양계민·김승경 2010). 따라서, 사회환경적 요인 중 차별경험 및 경제적 불안정성과 같은 예측요인을 줄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인식 개선 교육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문제 완화 서비스가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

이주배경 아동과 가정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중재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중재가 이주배경 아동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내재화 및 외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가정적·사회환경적 요인들의 예측요인 및 보호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각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영향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경험, 경제적 어려움 등은 다수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예측요인이다. 자아탄력성, 긍정적 또래관계, 사회적지지 등은 보호요인으로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요인의 경우는 특정 문헌에서만 측정되거나 제한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문헌 간 비교에 제한이 있었다. 이는 연구마다 설정한 대상, 연령, 국적 등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유사한 요인을 일관되게 포함한 연구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주배경인의 정서적 지원과 문제행동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중재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인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여 사회적응 또한 촉진될 수 있다(채명옥 외 2018). 전문가들이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중재를 활용할 때, 보다 효과적인 중재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문헌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연령대의 문제행동 및 영향요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문제행동 관련 요인의 다양성과 문헌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선정된 문헌들의 중재효과 크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의 엄격한 기준(PRISMA 지침)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였으며, JBI의 횡단적 조사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연구의 질을 확보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의 연구에서 이주배경인의 문제행동을 다룬 문헌 수 자체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근거 수준이 높은 이주배경인의 문제행동 관련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거주 이주배경인을 대상으로 13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문헌들은 2010년 이후 출판된 최근 15년 이내의 연구들로 구성되었다. 분석된 문헌들은 주로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시아권 국가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내재화 행동에서는 불안, 외재화 행동에서는 공격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중 문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이주배경 아동들의 자아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적 특성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차별경험과 민족정체감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한 점과 서구 국가 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문제행동 관련 요인의 다양성과 문헌의 수가 적어 중재효과의 크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주배경인의 문제행동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행동과 그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이주배경 사회에서 이주배경 관련 전문가들이 이주배경인의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교신: 정민예(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minye@yonsei.ac.kr)

Correspondence: Min Ye Jung(Professo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ersity)
(minye@yonsei.ac.kr)

2025.01.15 접수, 2025.02.07 심사, 2025.05.16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지현 외, 2013,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성 비교 -역량과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한 잠재평균분석-, 교육문화연구, 19(2), 31-62.
- 강화·배은경, 2018, 이주배경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2, 131-164.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2017.08.31, 2017년 교육기본통계 보도자료, https://kess.kedi.re.kr/post/6661635?itemCode=04&menuId=m_02_04_02.
- 교육부, 2020, 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국가통계포털, 2022, 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2&conn_path=I2.
- 김경희 외, 2011, 대학생의 다문화 교육 필요성 인식, 초등특수교육연구, 13(1), 1-16.
- 김민정, 2021, 중국 부모를 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살행동과 이들의 공존양상 실태 및 관련 요인: 한국 부모 가정 청소년과의 비교, 중국학연구, 24(4), 1-28.
- 김선희,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0(6), 95-115.
- 김순양, 2013,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집문당.
- 김유경 외, 201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원경 외, 2011, 다문화교육 필요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초등특수교육연구, 13(1), 1-16.
- 김은혜·최려나, 202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인식, 우울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아동학회지, 45(1), 39-52.
- 김재철 외, 2016, 다문화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문제행동척도 요인구조 비교, 교육치료연구, 8(1), 97-115.
- 김정은,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21-37.
- 김청송 외, 2017, 경기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발달과정 특징에 따른 사회부적응 실태와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 김현옥,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5(1), 63-72.
- 권정윤 외, 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4), 275-296.
- 박경희, 2008,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중단매개효과분석: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7, 353-376.
- 배경희,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1(9), 33-54.
- 백용매, 2015, 농촌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아발달수준과 문제행동중후 비교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1), 39-57.
- 보건복지부, 2009,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고서, <https://iii.ad/111b07>.
- 서봉언,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비행 참여요인 탐색, 현대사회와 다문화, 9(2), 123-150.
- 성상희 외, 2014,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남자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8(2), 157-175.
- 송미경 외, 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신동준, 2012,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3-217.
- 심미영·이들녀, 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3), 241-251.
- 안선정 외,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안성조 외, 2019, 대구경북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포용성 확보 방안, 대구경북연구, 18(2), 41-66.
- 양계민·김승경, 201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99.
- 양미경, 2017,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한국다문화학회지, 10(3), 25-48.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sn=704929.

- 엄희정, 202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옥선,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45-65.
- 오지훈·김현수, 2017, 다문화가정 이주민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언어 및 사회 능력과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5(4), 687-708.
- 유지희·황숙연, 2016,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115-146.
- 유지희·황숙연, 2018,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4), 169-193.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42(2), 72-103.
- 윤초연·장영애,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1), 5-16.
- 이덕희,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3), 77-96.
- 이수민 외, 2021,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1(5), 776-793.
- 이수자, 2023, 독일 베를린시 Stadtteilmutter(도시지역어머니) 프로그램 연구와 시사점 탐색: 이주민 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3(1), 87-106.
- 이아름·송원영, 2018, 고위험 문제행동을 보이는 초등학생을 위한 구조화된 인지행동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 245-251.
- 이윤미·최희승, 2018,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정신간호학회지, 27(2), 159-169.
- 이제화·이상복, 2007,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분석: 199.
- 이지영,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2), 105-125.
- 이지영·이주연, 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 및 교육복지, 3(2), 19-27.
- 이형하,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4), 197-205.
- 이지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 국가정책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48, 1-24.
- 이희재, 2019, 한국 다문화사회의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임형백, 2009,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다문화사회연구*, 2(1), 161-185.
- 장혜진·윤혜미, 2010, 농촌아동의 가정환경자극과 학교적응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33, 7-36.
- 정기선·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정미경·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정옥희,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10(2), 23-37.
- 정재옥 외, 2019,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정서와 반응의 문화차이: 한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3), 461-485.
- 주형철·신종화, 2013, 중국계 다문화가정의 여가제약에 따른 여가동기, 만족 및 지속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8(1), 17-32.
- 조영아 외,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7), 33-57.
- 채명옥 외, 2018,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요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2), 614-626.
- 최운선, 2012, 한·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민족 정체감, 차별경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7(2), 49-71.
- 최진희, 2018, 장애학생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현장특수교육웹진*, 2018년 가을호.
- 최형성, 2018, 유아교사의 다문화 태도와 문제행동지도효능감이 다문화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0), 375-393.
- 한민·류승아, 2018, 부당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의 문화 차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251-272.
- 허준, 2020, 다문화사회 이주민에 대한 전도방안 연구, *선교신학*, 58, 375-411.
- 현정미 외, 2014, 남녀 청소년의 가족배경변인, 자아존중감 및 가족건강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6(3), 1-15.
- 홍재양, 2020, 봉사체험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and L. A. Rescorl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ahr, P. R. et al., 2019, *Improving placement accuracy in California's community colleges*

- using multiple measures of high school achievement. *Community College Review*, 47(2), 178-211.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Cho, Y., 2010, Policy note: Diversification of the student popul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ies in Korea. In *Globalization, changing demographics, and educational challenges in East Asia*,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183-198.
- Joanna Briggs Institute, 2017, Checklist for analytical cross-sectional studies. Adelaide, Australia: The Joanna Briggs Institute.
- Kim, A., 2018, Social Exclus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Social Sciences*, 7(4), 63.
- Kim, N. H. J., 201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the puzzle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1), 103-117.
- Moher, D. et al., 2009,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1(4), 264-269.
- Noh, S. et al., 2007, Overt and subtle racial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Preliminary findings for Korean immigra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7), 1269-1274.
- Waters, L. and M. C. Higgins, 2022, The impact of a teacher-based positive education intervention on student wellbeing literacy. *Journal of School and Educational Psychology*, 2(1), 22-43.

Factors Influencing Problem Behaviors in Multicultural Residents in South Korea : A Systematic Review

Seung Hui Jeong* · Jin I Hong** · Ji Won Shin*** · Min Ye Jung****

Abstract This systematic review examines problem behaviors and their influencing factors among multicultural individuals in Korea. By clarifying the research objective, it enhances comprehensiveness. It provides data for professionals assisting multicultural individuals in adapting to Korean society and integrating into communities. Following PRISMA guidelines, literature was collected from KCI, RISS, and the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and assessed by three researchers using JBI criteria. Thirteen studies were selected. Analysis showed that anxiety was the most frequent internalizing behavior, while aggression was the most common externalizing behavi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the primary influencing factor. Most studies focused on preschool and school-aged children from Asian countries. This review improves understanding of problem behaviors and helps professionals strengthen protective factors and implement interventions.

Keywords Immigrants, Influencing Factors, Multicultural, Problem Behaviors, Systematic Review

* First-Author,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Integrated M.A./Ph.D., wjdtm-dgml98@yonsei.ac.kr

** Co-Author,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M.A., hongj6932@gmail.com

*** Co-Author,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M.A., sjw1151@yonsei.ac.kr

**** Corresponding Author,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Professor, minye@yonsei.ac.kr